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작자미상

숫자에 밝지 못해도, 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폴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류의 시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색깔 다른 콩 두개가 어떤 모양의 콩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어도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놀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조각칼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하늘의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없어도
새와 함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돈 세는 것이 서툰고, 물정에 어리숙해도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줄서기를 잘 못해서 매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럴싸한 말로 다른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글쓰기를 조금 못해도, 책 읽기가 조금 서툰어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용서해줄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반대하는' 특기를 갖기보다 '찬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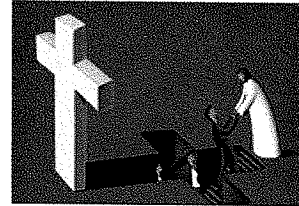
◀그뎨 그랬지▶ 구멍뚫린 아기들의 속내의

그 시절 아기들 내의 오줌싸는 부분은 엉덩이부분까지 구멍을 내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그리 흔치않던 시절에 터득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늘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는 답답함 보다 그때가 더 인간친화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고추와 엉덩이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아기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지만....
있는게 흔치 않던 시대를 살아 가면서도 하루의 배부름에 감사하던 그 시절, 기저귀로 옥조이다 풀려진 아기들 만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0월 24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우리 동네 목사님

- 기형도의 유고시집에서-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흉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들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쭈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주성주성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라도 주성주성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폐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믿음의 명상▶ 자기가 정한 묘비명

"마지막 심판의 날!
천사들께서는 나팔을 아주 크게 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묻힌 자는 가는귀가 먹었습니다"

-베르나노스(1888-1948)-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6장	다 같이
*성서교독	13 (시 32)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88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상7:1-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 이름의 능력(4) "에벤에셀"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42 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10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3	노은숙	한정옥	7구역	3	구역예배(8)
10	박일영	허미숙	8구역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17	이광희	최현철	청년부	17	식사친교주일 은 십자가성가대(학생부)
24	이규임	강은미	9구역	24	Labour Day(25)
31	이재영	권영희	10구역	31	이삭줍기주일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딸 출산 방문(미국)> 백재성 집사, 김소연 권사(한국)
<한국방문> 이종인 집사, 윤정화 집사(모친), <한국방문> 조재근 집사
<등록을 함께 기뻐합니다> 고봉준, 손영희 성도(2선, 6구역), 정민
☎ 523-4347 2A Adam St. Greenlane.
-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수요수도원"입니다 <수요일 저녁 7:30-8:30>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도와 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에 벽을 느낍니다. 수요수도원에는 아무 순서도 없습니다. 그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만 있습니다.
- 각 선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은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주일(예고)
*모아진 Silver Coin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 세례, 유아세례, 입교(유아세례받은 교우) 대상 교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우,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우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중 대상자에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6:00am>
*요즘 새벽은 약간 냉한 공기가 오하려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어둠 거치기
전 문나서는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많은 차들을 보며 그 마음 접습니다.
-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 위한 Donation을 요청: 학용품, 장난감등
- 친선골프대회: 이제 햇볕 따가운 날씨가 일주일이면 몇일은 되는 것 보니 봄은 왔
나봅니다. 모처럼 Golf로 좋은 친교를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일시> 10월 30일(토) 오후 1시 <장소> Whangaparaoa Golf Club
<대상> 전체 남여선교회원 <주관> 제1남선교회 <신청> 각 선교회 총무→제1남 총무
<회비> \$40(Dinner 포함)

◀착한 시인들▶

(김재연 집사께서 여선교회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김재연-

따스한 햇볕 받으며 즐기고 있는
이웃집 할아버지의 모습이 편안해 보이는 날들입니다.
이런 저런 타향 살이 힘들 때 마다
우리 그저 그 분만을 바라 볼 뿐입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지 않아도
힘든 어깨 뜨겁게 안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 합니다.
사람의 위로 보다는 주님의 위로가
더욱 위안을 주는 진리를 우리는 매일 매일 느끼며 삽니다.
주께서 가신 가시밭 길을
우리도 각각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매고 따라 갑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그분을 만나고
짚어진 십자가를 가볍게 내려 놓습니다.
그날엔 우리 모두 즐기고 있는 이웃집 노인 처럼 편안해 집니다.